

日 F-35 105대 구매... 亞 군비경쟁 촉발하나

中군사전문가들 잇단 우려 표명 남중국해 역학관계 부정적 영향 中 전투기 젠-20 개발 가속 전망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도입하기로 한 계획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중국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이 F-35 105대를 도입하기로 한 계획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군사전문가 저우 천밍은 "일본의 F-35 대량 구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의 F-35 대량 도입이 중국에 대해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 프로그램을 가속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링난대 장바오후이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임은 "일본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를 구매하면 남중국해의 역학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일본은 자국의 항공모함에 F-35B를 배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군사전문가인 쑹중핑은 "일본의 F-35 대량 구매는 아시아 지역

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과 미 동맹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스텔스기를 생산하고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 미국으로부터 F-35 105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F-35A·B 전투기를 모두 105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젠-20' 전투기의 양

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젠-20은 중국이 러시아제 'AL-31' 엔진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기다.
젠-20은 2011년 1월 시험 비행을 한 뒤 2016년 11월 주하이(珠海) 에어쇼에서 공개됐다.
중국은 아직 젠-20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 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에 젠-20 전투기의 실전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만일 중국이 젠-20을 실전 배치하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은 더 커지고, 중국 공군의 작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바이러스 걸린 노트북도 예술작품? 뉴욕 온라인 경매서 16억원에 낙찰

中 귀오동의 삼성 노트북 작품

21세기 최악의 컴퓨터 바이러스들에 감염된 노트북이 예술품 경매에서 우리 돈 16억 원에 팔렸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아티스트 귀오동이 만든 '혼돈의 지속'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이날 미국 뉴욕의 한 온라인 경매에서 134만5천 달러(약 16억 원)에 낙찰됐다.
삼성전자의 2008년형 검은색 10인치 노트북으로 만든 이 작품에는 평범한 랩톱 컴퓨터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낸 최악의 바이러스 6개를 담았다.
2000년 '아이 러브 유' (I LOVE YOU), 2003년 '소빅' (Sobig), 2004년 '마이둠' (MyDoom), 2013년 '다크테킬라' (DarkTequila), 2015년 '블랙에너지' (BlackEnergy), 2007

년 '워너크라이' (WannaCry)가 여기에 들어 있다. 이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기록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총 950억 달러(약 11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혼돈의 지속'은 단순한 랩톱 컴퓨터가 세계 전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AFP는 평했다.
사이버보안 회사 딥 인스팅트가 개설한 이번 경매 사이트는 작가인 귀오동에 대해 "현대의 과도한 온라인 문화를 비평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매 주관사는 구매자가 이 작품에 담긴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이 작품은 연구 용도만 사용할 수 있고, 입찰자는 계약상 어떠한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관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지붕 사라지고 폐허만... 토네이도 강타한 미 오하이오 쇼핑센터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의 한 쇼핑센터 건물이 28일(현지시간) 지붕이 사라진 채 크게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교사 5만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

뉴질랜드에서 교사 수만 명이 29일(현지시간) 임금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파업을 벌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질랜드 교사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는 초·중등 교사 5만 명이 참가했으며, 전국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번 파업은 중도좌파 성향 저신다 아던 행정부의 첫 복지 예산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아던 행정부는 이 예산에 대해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홍보해왔다.
교사 노조는 임금인상과 업무부담 축소를 위해 정부와 수개월 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질랜드의 초등교사 노조인 뉴질랜드 교육협회(NZEI)의 린다 스텐트 회장은 이날 초 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부 제안은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은 교육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노조의 파업 선언 직후 크리스 힉킨스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4년간 12억 뉴질랜드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한 방안을 지난 10년간 교사들이 받은 최대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9일 지역 방송인 '라디오 뉴질랜드'에 출연해 올해는 교사 임금인상을 위한 더 이상의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화웨이 美정부 상대 소송... "美제재는 폭정" 비난 1분기 스마트폰 판매 2위 자리 지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해 고사 위기에 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9일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에 따르면 화웨이는 자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이번 금지령은 전형적으로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으로서 화웨이가 유죄라고 직접 판단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치는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이 재판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사실상의 블랙리스트

인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러써 화웨이는 인텔, 퀄컴, 구글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들로부터 핵심 부품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조달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 화웨이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2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올리며 제재에 나섰지만

1분기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는 그러나 판매량을 집계한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를 인용해 화웨이의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화웨이는 1분기에 전 세계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5천84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15.7%로 2위를 지켰다. 삼성은 점유율 19.2%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日 언론 "北, 외자 유치 기대하며 경제개발구 재편"

북한이 지난해 이후 외국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경제개발구를 재편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에선 외국인의 복잡한 출입국 절차와 고액의 토지 임차료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사히는 이에 대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에서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해당 자료는 북한 당국이 외자 유치 담당자들에게 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경제개발구 사업은 2013년 시작됐으며 지난해 현재 분야별 정비 수는 공업 14개, 농업 3개, 관광 6개, 수출가공 3개, 첨단기술 1개 등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인근, 투자가치높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옆.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매매가,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